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4. 1. ~ 4. 7.

페이지	제 목	비 고	유형
2-3	“충남 특화 작목의 미래는 스마트팜 활용에 달려”	한국영농신문	인터넷
4	예비 청년농업인 양성 프로젝트 첫발...아카데미 개강	경북도민일보	인터넷
5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영농 모델로 똑똑하게 감귤 생산한다	스타트업4	인터넷
6	“스마트팜, 인력·시간 절감 효과적...매출도 쑥”	농민뉴스	인터넷
7-8	축사에 ICT 적용 ‘스마트축산’ ...2022년까지 농가 25% 보급	신아일보	인터넷
9	스마트팜 최적 환경설정 인공지능으로 소득제고	전북 도민일보	인터넷
10-11	도심형 스마트팜을 식당에서 만나다...샤브샤브 전문점 꽃마름, 매장 내 수직농장 도입	매일경제	인터넷
12	스마트팜 연계 농기자재 한눈에	축산 경제신문	인터넷
13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군 스마트팜 방문해 현장 소통 나서	아시아 투데이	인터넷
14	첨단 농기계 개발로 4차산업 시대 선도	한국 농기계신문	인터넷
15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정한 절차 거쳐 선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터넷

"충남 특화 작목의 미래는 스마트팜 활용에 달려"

충남 농기원, 세미나 열고 스마트팜 이해와 확산 방안 등 논의

습글습 기자 습인 2019.04.02 00:21



충남도농업기술원이 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정책 방향과 현장 활용, 최신 재배 기술 동향을 전파하여 조기 확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3월 27일 스마트팜 농가, 4-H회원, 관련 연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이해와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 현장에 확대되고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이해와 확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 ICT 융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충청도청 신장철 주무관은 '충남
형 스마트 원예 산업 육성 계획을 단계별
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으
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
하였고, 나루농업컨설팅 이정필 박사는 '작물 생육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생산
성 및 품질을 높이는 최신 기술'을 설명하였으며, 서브스트라투스코리아 김성은 대표
는 '온도, 습도, 광 등의 환경 관리를 통한 토마토, 오이 작목의 최신 재배 기술'에 관
해 발표했다.

도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 팀 이원근 박사는 "이번 세미나는 충남 스마트팜의 기
술 향상과 확산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며 "앞으로 충남이 농업 환경에 적합
한 실용적인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sks@youngnong.co.kr

<저작권자 © 한국영농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비 청년농업인 양성 프로젝트 첫발... 아카데미 개강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4.07 | 댓글 0



경북도 농업기술원 사진=경북도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6일 농업인회관에서 의성지역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정착할 예비 청년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생은 무자본 무연고 무기술의 3무(無) 창농을 희망하는 만 18~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인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집중 투자해 청년들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다. 교육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18회에 걸쳐 작물기초, 재배교육, 선진지 견학, 실습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교육생 여건을 고려해 현업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인 토요일에 실시한다.

특히 실습교육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등에서 전문가로부터 딸기 신품종 소개와 더불어 딸기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육묘기술 전 과정을 현장에서 몸소 익힐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딸기재배에 대한 기본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올해 완공예정인 의성 스마트팜에서 1~3년간 창업실습훈련을 거치고 창농 준비가 된 예비 청년농업인에게는 개별 창업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도시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의성 스마트팜 조성이 청년농업인들의 농촌지역 정착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성공적인 출발이 되어 농촌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영농 모델로 똑똑하게 감귤 생산한다

백규현 기자 | 승인 2019.04.02 17:22 | 댓글 0

[스타트업4=백규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도비 6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한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균일한 품질 감귤생산,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한 감귤 생산전략 수립, 효율적인 방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스마트 영농 모델'을 통해 감귤나무별 당도 차이를 분석, 정밀 관수로 균일한 품질의 감귤 생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나무별 당도를 측정해 당도지도를 작성하고, 토양수분함량 실시간 파악을 위해 센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전자유량계와 전자밸브를 설치해 정밀 관수를 하면 균일 품질의 감귤이 가능해 진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스마트한 감귤 생산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먼저, 농가별 측정 감귤당도와 관수량을 지속적으로 스마트팜 통합관리 시스템에 저장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해당 빅데이터를 이용, 당도별 생산량과 수확시기를 예측하면 스마트한 감귤 생산전략 및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는 농가별 당도 등 감귤품질 정보를 농협 등 유통단체(업체)에 제공해 정확한 품질정보에 의한 수확·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충시기 파악 파악으로 효율적 방제를 도모한다.

감귤원에 증기농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설치, 해충의 활동시기를 관찰해 가장 효율적인 방제 횟수·시기가 파악 가능해진다.

농가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방제가 줄어드는 등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한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사업은 지난 2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올해 농식품부에서 노지작물 분야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발굴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농업기술원은 '노지감귤 뿐만 아니라 타 노지작물에도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영농 기술을 보급해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인력·시간 절감 효과적…매출도 쏙”

입력 : 2019-04-01 00:00 | 수정 : 2019-04-01 08:57



스마트팜 가지농사 짓는 최종건씨 <경기 여주>

정부 지원으로 첨단시설 설치 기존 가지 재배방법서 탈피

8월 정식·이듬해 7월까지 생산 지난해 매출 1억3000만원

“농사는 ‘종합예술’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인력까지 운용해야 합니다. 농장주가 마치 관현악단 지휘자 같아 매력적이죠.”

올해 스물여섯의 젊은 농군 최종건씨(경기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가 생각하는 농업이다. 고등학교 때 꽤나 공부 잘한 우등생이었던 그가 진로를 고민하던 중 떠올린 것이 바로 ‘종합예술’인 농업이었다. 8년 뒤 최씨는 성공한 ‘종합예술인’을 꿈꾸며 더욱 열심히 달리고 있다.

2016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가지농사를 시작했다. 2644㎡(800평) 규모에 4연동 시설하우스를 지으면서다. 2017년 정부와 경기도 지원으로 다겹보온커튼과 스마트팜 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8~9월에 가지를 정식해 이듬해 7월까지 수확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최씨는 “2~3월 정식해 11월까지 수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가격이 좋은 겨울철에 수확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금까지 수익이 좋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는 경영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인근 시설하우스를 하나씩 인수해 현재 16동 9917㎡(3000평)에서 가지를 생산한다. 최씨는 “일부 시설하우스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중”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경영규모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수산대학을 나온 최씨지만 창농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창농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으로 “재배기술 습득과 자본조달·인력운용”을 들었다. 특히 “지원금을 받아도 시설농사를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더 현실적인 청년 창농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씨에겐 목표가 있다. 한농대 시절부터 꿈꾸던 딸기 재배에 도전하는 것이다. 최씨는 “최고 품질의 가지와 딸기를 생산하고 싶다”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일해 목표를 이루겠다”고 당차게 말했다.

여주=유건연 기자

축사에 ICT 적용 '스마트축산'... 2022년까지 농가 25% 보급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4.03 12:33 | 댓글 0

사양·축사환경·가축건강 등 정밀제어
도입 후 한우 사육마릿수 25% 증가
생산성 제고 등 축산 경쟁력 증대
데이터 기반 정밀축산기술 개발 추진



스마트축산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 어느 젖소농장. (사진=농촌진흥청)

첨단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축산 모델'이 사양과 축사환경, 가축의 건강관리까지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농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가축 생애주기를 정밀 관리할 수 있는 더욱 진화된 스마트축산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전체 축산농가의 25%인 5750호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축산은 시공간 제약 없이 자동·원격으로 축사를 정밀관리·제어하는 지능형 축산이다. 농장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치를 설치하고 가축의 체온과 행동, 사료섭취량, 축사 온·습도와 같은 생체·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해 추출한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축과 축사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장에 적용한 스마트팜이 축산 분야에 적용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1425호의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산 모델이 시범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축산 모델은 작업의 편의성은 물론 농가 생산성도 제고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우 스마트축산 모델 농장의 경우 노동력은 절감되면서 사육마릿수는 도입 전 120마리에서 150마리로 25% 증가했다. 또 개체별로 정밀 사양 관리(가축 영양관리)가 가능해져 암소의 평균 공태일(비임신기간)은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되는 한편 송아지 폐사율은 10%에서 5% 수준으로 절반이 낮아졌다.

젖소 스마트축산 모델은 정밀 개체관리로 두당 일평균 착유량(우유 짜는 양)이 40킬로그램(kg)에서 43kg로 늘었고 평균 공태일도 220일에서 150일로 70일이 줄었다.

돼지 스마트축산 모델 역시 어미돼지 한 마리당 젖을 땀 새끼돼지(이유두수·PSY)가 연간 18.7마리에서 25.7마리로 생산성이 40% 가까이 높아졌고, 어미돼지의 연간 출하마릿수(MSY)도 17.8마리에서 23.7마리로 크게 늘었다. 사료요구율(FCR)은 오히려 3.5kg에서 3.12kg으로 10% 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곽정훈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장은 “시간·장소 제약 없이 축사 상태를 관측·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개체관리로 가능해져 농가 생산성이 개선됐다”며 “현재 어미돼지 자동급이기·송아지 젖먹이 로봇 등 다양한 ICT 장치가 스마트축산 모델에 적용 중이며 로봇착유기·무인 오리깔짚 살포 장치 등의 신규 ICT 장치를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을 축사에 접목하고 가축 생체정보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축산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의 ICT 장치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제어기의 소스코드와 데이터 서버와의 데이터 명세·전송규약 등을 공개하는 ‘개방형 제어’를 통해 새로운 장치를 추가하거나 교체가 쉽도록 스마트축산 모델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산업의 R&D 투자로 2022년까지 축산전업농가의 25% 수준인 5750호 농가에 ICT 장치를 보급하는 등 스마트축산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

스마트팜 최적 환경설정 인공지능으로 소득제고

☎ 정재근 기자 | Ⓞ 승인 2019.04.07 17:17 | 💬 댓글 0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한국형 스마트팜 기반구축과 단계적 확산'을 위해 '딸기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8일 개최한다.

스마트팜은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기술 등을 융복합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농장이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모바일 앱으로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편리성에 중점을 둔 1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했고, 현재는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 2세대 스마트팜을 개발 중이다.

전남 장성의 이장호씨 딸기 재배농장에서 실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진청이 개발한 '딸기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최적 환경설정'으로 생산성 향상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딸기 정밀 환경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는 농업인과의 간담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관리 기술은 스마트농업 전문가들이 최근 2년간 연동온실 30농가에서 수집한 생육조사 및 환경 데이터를 내·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분석하여 개발되었다. 개발 기술(AI)을 적용할 경우 딸기 스마트팜 농가의 연평균 생산량은 우수농가(10a 당 7,288kg)가 일반농가(3,740) 보다도 1.95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겨울철에 생산량을 2.3배 정도 증대시킬 수 있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온이 상승 딸기가 물러지기 쉬운 봄철(4~5월)에 농가에서 딸기 상품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염류농도를 높이고, 1일 물 공급량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농촌진흥청장과 스마트팜 농업인들이 보다 정밀한 작물 환경·생육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2세대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시기별 작물의 적정생육을 위한 환경관리'라며 다음 작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 농가의 보다 정밀한 환경관리를 지원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작물로 확대 빅데이터 수집과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생산량 증대와 소비예측을 결합한 농가수익 최적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심형 스마트팜을 식당에서 만나다...샤브샤브 전문점 꽃마름, 매장 내 수직농장 도입

입력 : 2019.04.02 18:30:27 수정 : 2019.04.05 16:44:42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샤브샤브 전문점 꽃마름' 일산점에 설치된 스마트팜을 고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 꽃마름)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배환경을 완전히 통제하여 친환경 채소를 빠르게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인 수직농장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일산 그랜드백화점에 위치한 꽃마름 샤브샤브 일산점은 요식업계 최초로 수직농장을 매장에 유치하고 원가 절감과 고객만족도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꽃마름이 매장 내에 수직농장을 도입한 목적은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다른 매장들과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고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수직농장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였다.

최근 요식업계 트렌드인 브런치푸드, 웰빙푸드, 슬로푸드를 실현하고 있음을 고객들에게 재배과정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는 수직농장이 가진 특성에 기반한다.

수직농장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온도와 습도, 양액 등이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어 재배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농약, 미세먼지, 유전자조작 등이 없이 친환경 무오염으로 청정 식품을 재배하는 방식이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매장 방문 고객인 이브라(35)씨는 "내가 먹는 식품이 자라서 내 식탁에 오기까지 그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하고 매우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특히 식품의 성장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교육용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심형 스마트팜인 수직 농장을 통해 수익성과 독창성을 확보하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볼 수 있는 수직농장에서 나오는 초록 빛과 LED 빛이 어우어져 밝고 청정한 느낌의 조명을 선사한다. 또한 터치식 컨트롤패널, 자동 조정장치 등 최신 기술이 전면에 드러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매장이 최신 기술로 운영되는 세련된 매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다른 매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창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이 시기에 따라 급변하여 채소 수요가 많은 샵샵 매장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중요한데 이 매장의 경우에는 내부의 수직농장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양과 품질, 그리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항상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꽃마름 일산점 한원석 대표는 "고객에게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스마트팜을 매장에 도입하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어 수직농장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우리 매장 먹거리에 신뢰를 가지고, 먹는 즐거움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스마트팜을 프랜차이즈에 적용하는 특허를 기반으로 F&B 스마트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센터는 화성의 바오밥 식물원에 이어 꽃마름까지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스마트팜센터의 조만호 대표는 "도심형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시스템은 빅데이터 기업 소프트뱅크의 ARM 금형 시스템 기업 대산정밀,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등 여러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적용된 최첨단 농업 시스템"이라며 "고객 접점에 위치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매경닷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팜 연계 농기자재 한눈에

김기슬 기자 | 승인 2019.04.05 11:51 | 댓글 0

상주농업기계박람회 성료
219업체 참여 역대 최대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북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상주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기자재산업의 안정화 및 해외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연계 농기자재의 종합전시로 농업인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면적 1만7909㎡(전시장 1만6649㎡, 부대시설 1260㎡)에 219개 업체가 참가해 394개 기종을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야외전시장은 △축산기계를 포함해 △경운정지기계 △재배관리기계 △농산가공기계 △과수임업용기계 △시설 및 원예기자재 △이앙·이식·파종기계 등을 전시·시연해 농가와 업체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또한 △시설원에 수출촉진을 위한 세미나 △국제농기계학술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와 함께 △트랙터 시뮬레이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포스터 전시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상주시 관광홍보 및 기업홍보관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아울러 전시기간동안 매일 추첨을 통해 다양한 농기계를 경품으로 증정해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개막식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주농업기계박람회는 매년 발전을 거듭해 타 지역이 부러워하는 명망 있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농업인에게는 농작업의 경쟁력 제고를, 출품업체에는 기술력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군 스마트팜 방문해 현장 소통

이명남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08. 16:07

“현장중심형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할 것”



서삼석 국회의원이 8일 영암군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 스마트팜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제공=서삼석의원실

영암 이명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재배 스마트팜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팜을 방문한 서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 현황과 농가 경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스마트팜 농업인 등 참석자들과 차담회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 삼석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농업현장을 찾아 군민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으로 농업인과 청년들이 농업에 투자하고 생산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삼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전동평 영암군수, 김성일 전 라남도농업기술원장, 정찬명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스마트팜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첨단 농기계 개발로 4차산업 시대 선도

이세한 기자 | 승인 2019.04.01 16:53 | 댓글 0

농식품부, 2019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그간 보급사업에 큰 걸림돌이었던 중고농기계 재활용 체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고농기계 적정 매입가격이 조사돼 표준가격표가 배포되면 중고농기계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문제도 해결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발작물기계와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의 성능개선과 부품 품질 향상을 중점 추진한다. 사용자 의견을 농기계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정부차원에서는 안전검정 기준을 여성과 고령자에 맞춰 개선하고 안전사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농기계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ICT와 BT·NT 융합기술,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술 등이 해당되며 특히 올해는 첨단 농기계 품질 보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과 함께 원천·핵심기술에 대한 연구와 부품연구도 이뤄진다. 발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와 농업생산무인자동화연구센터를 통해 다양한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을 운영해 구출 유망국의 농작업 환경과 농법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를 개발한다.

해외전시회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 수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계업체는 수출업무 대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발농업기계화 중점추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첨단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의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한국농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정한 절차 거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19.04.01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은 **대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밸리는 **충북도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4월 1일 동아일보 <스마트팜 혁신밸리 탈락 충북도-제천시 “심각한 지역 불균형 우려” 강력 반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 공모에 탈락한 충북도(제천시)가 지역 불균형을 우려하며 선정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

○ 혁신밸리 공모계획에 부지는 지자체 소유 부지만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며 제천의 경우 사유지 비율은 불과 5%였음에도 탈락되고 선정된 지역(경남)은 사유지가 55% 차지하고 있음

○ 정부가 선정한 혁신밸리 4곳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결정했다기보다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충북이 혁신밸리에 앞서 대통령 공약으로 세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매우 유사해 정책의 출발점도 의심스러움

[농식품부 설명]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내외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의지,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역 가용자원을 활용한 차별 모델 등을 중점 평가하였습니다.

☐ 혁신밸리는 핵심시설물(보육센터, 임대농장, 실증단지)이 등기되는 시점까지 부지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 혁신밸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 임대부지 등 제외

○ 참고로, 기사에 따르면, 제천시에서는 사업대상지 경남(밀양)의 사유지가 전체 계획 부지의 55%라고 알고 있으나, 사유지 면적은 30% 수준이며, 등기시점까지 부지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할 계획임

☐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보육·기술혁신·생산 및 유통 기능이 집약된 거점으로, 충북도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044-201-2423)